경계에 선 인간의 고뇌들

박선하 · 이정서 작가, 스페이선+서 2인展

내년 1월 3일까지 개최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박선하 · 이정서 작가의 2인전 '언저리'를 개최한다.

박선하 · 이정서 작가는 공통적으로 언저리, 경계의 공간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박선하 작가는 주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계기로 살아있는 식물과,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듯한 박제라는 오브제를 병치한다. 또, 직접 박제를 하면서 존재에 대해 느끼는 상이한 감정을 두 화면의 비디오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손짓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모든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이정서 작가의 부처와 자개 작업은 한과 연민, 죽음과 삶, 깨달음과 번뇌 등 인간이 가지는 서로 다른 감각들의 경계선, 그 언저리를 형상화한다. 부처의 형상을 통해 인간 내면의 끊임없는 깨달음과 번뇌를, 자개와 같이 표현한 페인팅 작품을 통해 한과 슬픔의 언저리를 표현했다. (02) 732-0732

신성민 기자



이정서 작가의 작품 '반가사유상'

발우공양 BI, 美 '굿 디자인' 선정

그래픽 디자인 · 창의성 부문 인정받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의 BI(Brand Identity)가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66회째를 맞은 미국 굿 디자인은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 · 예술 · 디자인 · 도시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 · 혁신성 · 창의성 · 환경친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각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한다.

올해는 전 세계 46개국서 출품된 900여 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중 발우공양 BI는 현대적이면서 전통불교 정신과 이미지를 잘 담고 있다는 평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창의성 부문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측은 "사찰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BI 디자인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 전통불교에 간직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우공양을 통해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BBS,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방통위 의결… "종교방송 후원금 비중 확대해야"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정부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14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개최하고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BBS불교방송 등 33개 지상파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 · 의결했다.

BBS는 지난 2013년 방통위로부터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영업 · 후원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확보했다.

이번에 재허가된 지상파사업자들은 평가결과 65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은 곳들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BBS불교방송을 포함한 32개사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방통위는 종교방송에 대해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에 따라 포교활동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 재원구조의 변화와 함께 외부 감사기능 도입 등 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형 전시 '활발'… 창작 공연은 '어디에'

2016 문화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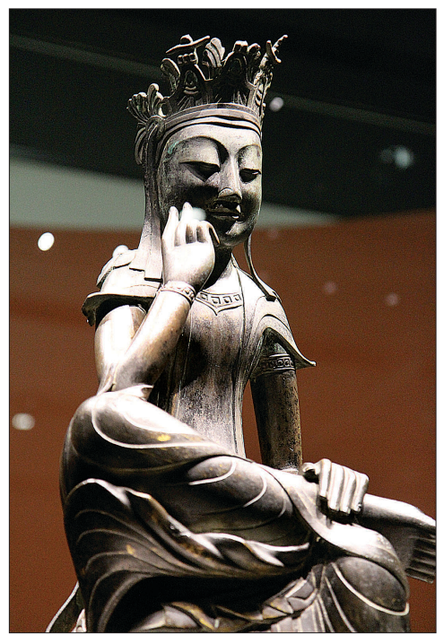
韓日반가사유상 · 백제展 등
대형 전시는 잇달아 열려
불일미술관 신진 발굴 활력

스님 웹툰 작가 활동 눈길
음반 · 공연은 전반적 저조해
사찰음식점, 미슐랭 등재도





스님들이 창작한 카툰작품들. 사진위는 지찬 스님의 '어라 스님', 아래는 서주 스님의 '다워니 스님'.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일본국보 반가사유상과 처음으로 합동전시됐다.



경허 선사 일대기를 그린 연극 경허—Empty Mirror'. 이를 제외하면 신작 불교 창작극은 찾기 어려웠다.

2016년 한해 불교 문화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전시는 활발했지만, 불교계 안쪽에서 큰 이슈를 가진 대형 기획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연계에서도 스테디셀러 연극 '이뭣꼬'는 계속 무대에 올랐지만, 새로 만든 창작극들은 거의 없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 관련 대형 전시 잇달아

올해 불교계 문화 행사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불교 관련 대형 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특별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다.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특별전은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한 자리에서 만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본 주구사 반가사유상 개안법회는 허용하고 한국 국보 반가사유상에는 헌다 의식을 불허해 문제가 돼 의미있는 전시의 옥의 티가 됐다. 결국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해명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도 1월 30일까지 개최하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 역시 불교 관련 전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열리는 특별전은 왕흥사지, 미륵사지, 왕궁리 사리장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전시여서 화제가 됐다.

20주년 맞는 불일미술관 '일신'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서울 법련사 산하 불일미술관은 기념사업으로 신진작가 발굴 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젊은 신진 작가의 경우 불교 미술이라는 특수성과 재원 부족으로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일미술관이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신진 작가들의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과 함께 12월 29일까지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전시회를 개최했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 전시회는 2003 · 2004 · 2007년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앞선 3번의 전시회는 종단 차원에서 이뤄진 전시회였지만, 법련사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반 신도와 미술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창작 공연 저조 · 웹툰 활성화

음반이나 공연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부처님오신날이나 개산대재에 진행되는 산사음악회와 관련 단체들의 공모행사와 정기 공연들을 제외하면 특별한 공연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경허연구소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경허 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경허-Empty Mirror',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를 불교적으로 옮긴 '엘렉트라 인 서울' 정도가 새로 선보인 불교 창작극이었다.

그나마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 발굴이 활성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SNS를 중심으로 스님 작가들의 웹툰 창작이 눈길을 끌었다. 어라 스님 캐릭터로 유명한 지찬 스님은 자신이 작품을 모아 〈어라, 그런데로 안녕하네〉를 출간했다.

동자승 다워니로 작품 활동을 하는 서주 스님은 SNS와 각종 전시회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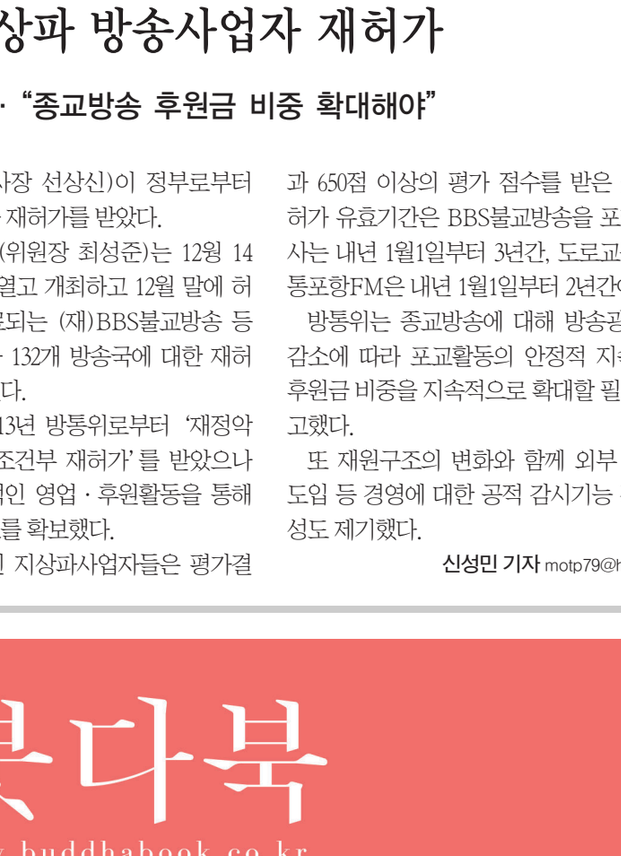
다만,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영역의 상품으로 확장시키는 '원소스 멀티유즈' 마케팅은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북 서울편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것도 의미가 크다.

미슐랭 가이드는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한 레스토랑으로 고기와 해산물 외에도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서 만드는 장류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슐랭 가이드 선정을 두고 '사찰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이자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상업용만이 아닌 수행자 음식이라는 철학과 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불교서적
명상음반
신행용품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054-842-0106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1개월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